

제106회 동계체전 폐막...전남 7위·광주 12위 '목표 달성'

전남 35개 메달·광주 동메달 3개
전남 봅슬레이·스켈레톤 '깜짝 금'
나주 이윤주·화순 조다운 등 다관왕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강원도 평창 일원에서 18일 개막한 이번 동계체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은 그동안 같고닮은 기량을 펼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전남 선수단은 총 3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목표로 삼았던 종합 8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 마지막 날까지 메달을 추가한 전남 선수단은 여러 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부 스프린트 0.7km에 출전한 이윤주(나주 다시초 6년)는 예선과 결승 모두 1위로 들어오며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5관왕(클래식 2.5km, 프리 3km, 복합, 계주 6km)을 달성했다.

여자부 스프린트 1.2km에서도 조다운(화순제일



제106회 동계체전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이 선전을 펼쳤다. 왼쪽부터 스노보드 김규원, 빙상 스피드 장운우, 스키 크로스컨트리 이윤주, 빙상 스피드 나건욱, 봅슬레이 전은지, 서유림(가운데 두 명).

중 3년)이 금메달을 추가해 4관왕(프리7.5km, 복합, 계주15km)에 올랐다.

남초부 스프린트 0.7km에 출전한 최지호(화순초 6년)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고부 스프린트 1.2km에서는 전다경(전남체고 1년)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봅슬레이·스켈레톤에서도 깜짝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다. 전은지와 서유림(이상 전남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은 봅슬레이 2인승 경기에서 1분 45초 8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강원, 전북, 서울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바이애슬론에서도 은메달과 동메달이 추가됐다.

남일부 계주 22.5km에 출전한 전남 바이애슬론팀 티모페이 랍산·스타로두비치 알렉산다·김철영은 1시간6분2초5로 2위를 기록했고, 여일부 계주 18km에서는 함혜영·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염혜진이 1시간 7분 22초 9로 3위를 기록했다.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리드 종목에서는 이영건(월출마당산악회)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대회 마지막 날에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추가한 전남선수단은 총 금메달 19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로 역대 최고득점인 373점을 기록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역대

최고 득점으로 목표했던 순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7위를 달성해 매우 자랑스롭다.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동계종목에서도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선수단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주며 3개의 동메달과 종합점수 159점을 기록했다. 광주는 경쟁시도인 세종, 경남, 대전을 제치며 지난해 순위이자 이번 대회 목표였던 종합 13위보다 한 단계 오른 종합 12위로 대회를 마쳤다.

특히 앞서 지난달 사전경기로 치러진 빙상종목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장운우(성덕중 1)와 나건욱(태봉초 6)의 활약이 빛났다. 또 김규원(광주스키협회)은 대회 3일 차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남일부에 출전해 자신의 생애 첫 메달을 따내며 광주에 값진 동메달을 더했다.

전남도체육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보여준 선수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선수 모두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시즌 첫 연습



광주도시공사 송혜수(23번)가 22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대구시청 25-22 제압...5위 추격
'5골 8도움' 송혜수 'MVP' 선정

광주도시공사가 대구시청을 제압하며 이번 시즌 첫 2연승을 거뒀다.

광주도시공사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대구시청을 상대로 25-22로 승리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시청을 상대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었던 광주도시공사는 현재 4승 1무 7패, 승점 9로 6위를 유지하며 4위 서울시청(6승 2무 4패·승점 14점)과 5위 부산시청(7승 0무 5패·승점 14점)을 추격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송혜수와 김수민이 각각 5골, 김지현이 4골을 넣으며 활약했고, 골키퍼 이민지가 7세이브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이날 경기 MVP로 선정된 송혜수는 상대의 수비를 뚫고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며 8개의 도움도 함께 기록했다.

한편, 대구시청은 정지인이 9골, 이원정과 노희경이 3골씩 넣었고, 골키퍼 강은지가 10세이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경기 초반, 양 팀은 긴장감 넘치는 맞대결을 펼쳤다. 광주도시공사는 송혜수의 정확한 패스와 슈팅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경기 초반 연달아 2분간 퇴장

이 발생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청은 이를 틈 타 도시공사와의 차이를 좁혔다.

전반 20분 대구시청 정지인이 연속 득점으로 한때 스코어를 8-7로 역전시키기도 했지만, 이후 광주도시공사가 송혜수, 김지현의 활약으로 다시 리드를 잡으며 전반전을 16-14로 마무리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대구시청 김희진이 16-16 동점을 만들어냈지만 광주도시공사는 이민지 골키퍼의 견고한 선방과 정현희의 돌파골로 점수차를 벌리며 우위를 굳혔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광주도시공사는 결정적인 순간 송혜수의 페널티 골로 최종 스코어를 25-22로 확정 지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

'하얼빈 AG 금' 김채연, 사대륙대회도 우승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김채연(수리고·사진)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이어 국내 팬 앞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도 완벽한 금빛 연기를 펼쳤다.

김채연은 2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 피겨 스케이팅 사대륙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8.27점, 예술점수(PCS) 70.09점을 합쳐 총점 148.36점을 받았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받은 74.02점을 보태 최종 총점 222.38점을 얻은 김채연은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적인 점수 차로 따돌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2위는 브레이디 테넬(204.38점), 3위는 세라 에버하트(200.03점·이상 미국)다. 이혜인(고려대)은 183.10점으로 8위, 윤아선(수리고)은 182.68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이어 사대륙선수권 대회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펼친 김채연은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프리 스케이팅 점수 역시 2023 세계선수권에서 세운 종전 개인 최고점 139.45점을 넘어서면서 김채연은 이번 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 프리 스케이팅, 총점 모두 개인 최고점을 다시 쓰며 국내 팬 앞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연합뉴스

17세 안드레예바, WTA 1000시리즈 최연소 우승

미라 안드레예바(14위·러시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1000시리즈 대회 단식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안드레예바는 2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WTA 투어 두바이 듀티프리 챔피언십(총상금 365만4963달러)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클라라 타우손(38위·덴마크)을 2-0(7-6(7-1) 6-1)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17세 10개월에 WTA 1000시리즈 대회 단식을 제패한 안드레예바는 이 부문 역대 최연소 기록을 달성했다.

WTA 1000시리즈 대회는 2009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으며 종전 이 대회 단식 최연소 우승 기록은 2023년 8월 코코 고프(3위·미국)가 세운 18세 5개월이었다.

WTA 1000등급은 4대 메이저 바로 아래에 해당하며 1년에 10개 대회가 열린다.

또 안드레예바는 24일 발표되는 세계 랭킹에서 9위에 올라 생애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하



우승 트로피를 받는 안드레예바(왼쪽). /연합뉴스

게 된다.

만 18세 이전에 단식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것은 2007년 니콜 바디디소바(체코) 이후 이번 안드레예바가 18년 만이다.

안드레예바는 "항상 우승 트로피와 함께 인터뷰하는 꿈을 꿨는데 오늘 현실이 됐다"며 "그런데 제가 아직 17세여서 우승 샴페인은 (마시지 않고) 보기만 했다"고 웃어 보였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4회 정기공연 '비발디 글로리아'
일시 : 2025-03-28(금) 18:00
장소 : 광주광역시청 시민홀
문의 : 062-613-8246



GAC 공모전시
탄소중립, 이끼로 말한다! : 원예복지협동조합
일시 : 2025-2-21(금)-2025-3-23(일)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